



수요 기도회 소식

10 2

주제: "용서받은 삶과 용서하는 삶."

진행; 석종훈 마르띠노 음악봉사자; 최 유스티노, 이세실리아 참석가족: 21명

공동 복음 묵상: 마태 6,14-15(주의 기도중)과 마태 18,21-22(일곱번 일흔번이라도..)

나눔; 김토마스(용서하는 삶은 좋은 마음으로 나쁜것은 판단하지 말고 보지도 말아야...)

지요셉(IMF때 친구에게 당한것을 용서하려고 열심히 기도 했으나 용서가 않돼...)

이니콜라스(인간의 의지만으론 용서할수 없고,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신안토니오(상사에게 받은 상처, 용서는 했으나 그 흔적은 남아있어...)

이필로메나(힘들었던 일을 기도회에서 빛으로 씻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김필립보(용서의 상대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이미 주님이 용서...)

김카타리나(내탓이요로 모든 미움을 성모님과 예수님께 봉헌하는 삶으로..)

박마리아(가까운 사람에게 받은상처로 힘들어 할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예언 모음;

-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여라.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 하느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움직이고 있습니다.
-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것은 네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 때문이다.
-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이웃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 주어라. 그리고 때린사람의 손을 잡아주어라.
-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것은 너희가 잘나서가아니라, 너희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 가족 소식 %%%%%%%%%

성령가족간의 경사에 모든 성령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최엄렬(바오로)와 최복동(카타리나)자매님의 아들 준호(바오로)군과

김지만(토마스)와 김화선(모니카)자매님의 딸 미수(리따)양의 혼배 미사가 민신부님 주례로

[Church of Resurrection \(725 Cascade Drive, Sunnyvale, CA 94087\)](#)에서 있습니다.

10월 5일(토) 12시 정오.

많은 기도로 새 삶을 찾는 젊은이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어 주세요.

@@@@@@ 기도 요청 @@@@@@

- + 김까리타스자매님 Oregon의 한 수녀원에서 병세악화로 저희들의 기도를 요청 하셨습니다.
- + 생후 3개월된 **어거스틴양이 머리의 종양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린 생명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도의 힘을 모아 주세요.
- + 조영희 (수산나) 자매님 취장 수술후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빠른 시일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 김대중 토마스형제님, 이인덕 루시아자매님, 오미영 마리아자매님 께서 암과 투병 중에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십시오.
- + 본당에서 매주 봉사하시던 James Walker형제님이 목의 종양으로 투병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5분 묵상

죄는 용서 받았으나 죄의 자국은 그대로

어느 마을의 한 과부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아들을 두어 몹시 마음 아프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과부는 여러 생각 끝에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내가 너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수없이 타일렀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니 이제부터는 네 스스로 좋지 못한 일을 했다고 느낄 때마다 저 기둥에 못을 하나씩 박도록 해라."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이라는데 그 정도도 못하랴 하고 마음먹었다. 이날부터 아들은 기둥에 못을 박기 시작했고 어느덧 더 이상 못을 박을 곳이 없게 되었다. 그날밤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내가 스스로 못된 짓이라고 생각한 것만도 저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남이 볼 때는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을까?"

그리고 아들은 밤새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눈물을 닦아라. 네가 네 죄를 뉘우쳤다면 너는 그것으로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좋은 일만을 하도록 하고 그 때마다 저 기둥의 못을 한 개씩 빼도록 하렴."

아들은 그날부터 다른 사람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둥에 꽂 차있던 못이 말끔히 다 빠졌다. 그러나 기뻐하기보다는 기둥의 못은 다 빠졌지만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자 오히려 가슴이 더 아팠다. 그 후 아들은 못자국을 볼 때마다 지난날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의 못자국을 지우기 위해 더욱 착한 일을 하며 지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용서를 해 주었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못자국은 오랜시간동안 성령의 힘으로 씻겨 내지 않는다면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될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로서 아픈 흔적을 지워야 하겠습니다.

<출처 미상>

주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진행; 김프란치스코 음악봉사자; 오 그라또, 최 유스티노, 이세실리아

공동 복음 묵상: 마태 22,1-16(혼인 잔치의 비유) 참석가족: 22명

나눔; 김프란치스코(진리를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던지...)

김토마스(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대답은 "미안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니콜라스(각자의 용서의 차원은 다르나, 지속된 용서만이 참된삶의 ...)

석마르띠노(힘들때 편안히 생각하고, 편안할때 구원이 힘들게 생각하며..)

이 수산나(끝없는 용서라는 신은근 신부님의 말씀으로 용서하는 방법을..)

김필립보(용서하는것 역시 기도로 이어질때 비로서 자신도 치유된다는...)

김카타리나(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것의 작은것 부터 버리는 생활을..)

박스테파노(용서는 내게 채워지지않아서 생기는것, 욕심을 버리면 더 쉽게..)

예언 모음;

- *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있다. 그러니 악에 휘싸이지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여라. 그리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라.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려라.
- * 나의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죽고만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라. 그것을 명심하여라.
- * 나는 너희를 홀로 내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항상 너희 옆에 있다.
- *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걸어갔던 길이 너희 앞에 있다.
- * 무엇이던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 속에 품으십시오.

%%%%%%%% 가족 소식 %%%%%%%%%

1. 준호 바오로군과 미수 리따양의 혼배미사는 많은 성령가족들의 기도로 축복받은 잔치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도해 주신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2. 박인수 스테파노형제님 PACE MAKER 관계로 병원에 가십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조 아가다 자매님: 난소암과 위암 수술후 집으로 돌아와 가료중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본인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4. 석마르띠노형제님 20일(일)에 2주간 여정으로 한국으로 출장떠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5. TAPE판매; 성장세미나(90분) 12개와 성령대회 4개를 16\$에 판매합니다. 회장께 접수를...

@@@@@@ 기도 요청 @@@@@@

- + 김까리타스자매님 Oregon의 한 수녀원에서 병세악화로 저희들의 기도를 요청 하셨습니다.
- + 생후 3개월된 **어거스틴양이 머리의 종양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린 생명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도의 힘을 모아 주세요.
- + 조영희 (수산나) 자매님 최장 수술후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빠른 시일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 김대중 토마스형제님, 이인덕 루시아자매님, 오미영 마리아자매님 께서 암과 투병 중에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십시오.
- + 본당에서 매주 봉사하시던 James Walker형제님이 목의 종양으로 투병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5분 묵상

큰 돌과 작은 돌

두여인이 노인 앞에 가르침을 받으려 왔다.

한 여인은 자신이 젊었을 때 남편을 바꾼 일에 대해 괴로워하면서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 여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다.

노인은 첫번째 여인에게 큰 돌 열개를, 뒤의 여인에게는 작은 돌 여러개를 가져오라고 했다.

두 여인이 돌을 가져오자 노인은 들고 왔던 돌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큰 돌을 들고 왔던 여인은 쉽게 제자리에 갖다 놓았지만 여러개의 작은 돌을 주워온 여인은 원래의 자리를 일일이 기억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에서 가져 왔는지 기억할 수 있어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으나, 많은 작은 돌들은 원래의 자리를 잊었으므로 다시 가져다 놓을 수 없는 것이다.

큰 돌을 가져온 너는 한때 네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양심의 가책에 겸허하게 견디어 왔다.

그러나 작은 돌을 가져온 너는 비록 하찮은 것 같아도 네가 지은 작은 죄들을 모두 잊고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는 뉘우침도 없이 죄의 나날을 보내는 일에 익숙해 졌다.

너는 다른사람의 죄는 이것저것 말하면서 자기가 죄에 더욱 깊이 빠져있는 것은 모르고 있다.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10 16

주제: "아름다운 나눔."

진행: 채 마리아 음악봉사자; 오 그라또, 최 유스티노, 이세실리아

공동 복음 묵상: 마태 28, 16-20(제자들의 사명) 참석가족: 25명

반가운 방문과 새로오신 가족: 김 세실리아 자매님과 유 헬레나 자매님.

나눔;

- 채 마리아(수재민 모금앞에서 주저하던 나 자신을 반성하며, 마음이 가난한자...)
- 강루시아(여행중에 만난 24년 수감생활을 하던 자와 결혼한 여인의 생활을 묵상..)
- 이니콜라스(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모르는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
- 김프란치스코(6.25사변때 도움준 사람의 집에있는 성물을 통해 천주교에 입교한..)
- 김 토마스(세상의 소금과 빛이되어달라는 주님의 뜻을 생활화하는 신자가 되어야..)
- 이요셉(형사가 준 목주를 들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격한 지존파를 보며 말의 ...)
- 이세실리아(자기말만 하는 봉사자를 통해 받은 상처로서 주님의 억울함을 묵상..)
- 이필로메나(간암 판정을 받은 성령가족을 위해 목주기도를 5단씩 바치자는 ..)

예언 모음;

- * 너희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나 역시 너희를 단죄하지 않겠다.
-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느님 이다.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 너희는 어떤 고통이 주어지더라도, 피하거나 이기려고도 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 주어라.
- 마음이 아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어루만져 주리라.
- 네 자신을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네 자신을 사랑하여라.
-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새로워 져라.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새로워 져라. 새롭게 되기위해서는 내 은총안에 머물러 있어야한다.
- 자선은 많은 죄를 없애준다. 자선을 베풀때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 손이 모르도록 하여라. 기도할때도 항상 겸손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사랑으로 기도하여라.

%%%%%%%%

%%%%%%%%

2. 오늘 기도회는 새로운 찬미곡을 오그라또 형제님이 준비하여 성가로서 주님께 찬미 하며 모든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좋은 기도회 였다.
3. 한국에서 잠시 다니러 오신 김 세실리아 자매님이 오랜만에 유 헬레나 자매님과 함께 기도회를 방문하여 한껏 분위기를 즐겁게 해 주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4.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성령가족이 간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령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묵주 기도 5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5. 강루시아 자매님, 이 아녜스 자매님, 모두 무사히 여행마치시고 기도회에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5. 조아가다 자매님: 난소암과 위암 수술후 집으로 돌아와 가료중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본인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 요청 @@@@@@

- + Lupus 병을 연구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가 단 시일내로 나오도록 절실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 + 김까리타스자매님 Oregon의 한 수녀원에서 병세악화로 저희들의 기도를 요청 하셨습니다.
- + 생후 3개월된 **어거스틴양이 머리의 종양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린 생명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도의 힘을 모아 주세요.
- + 조영희 (수산나) 자매님 취장 수술후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빠른 시일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 김대중 토마스형제님, 이인덕 루시아자매님, 오미영 마리아자매님 께서 암과 투병 중에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십시오.
- + 본당에서 매주 봉사하시던 James Walker형제님이 목의 종양으로 투병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5분 묵상

기도

기도는 무언가를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그분 손에, 그분 처분에 맡기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나는 매일 영성체할 때마다 예수님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보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기도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성인의 길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주의 기도>에는 하느님,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 등 모든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침묵은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침묵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과 기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10 23

주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으로 오시는 주님."
진행: 김프란치스코. 음악봉사자; 오 그라또, 최 유스티노, 이세실리아
공동 복음 묵상: 마태 22,34-40(첫째가는 계명) 참석가족: 22명
나눔;

- 이니콜라스; 의사가아니라 환자로서 오신주님! 소외되어보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수 없어..)
- 김 필립보: 근간의 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힘든이들을 위해 서로 마음으로라도 도움을 청...)
- 김프란치스코: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것은 내 자신이 남아있기때문에...)
- 강루시아:고통스럽고 힘들때 주님이 날 벌준다는 생각은 금물, 긍정적인 수용만이...)
- 김 토마스: 허락하신 고통은 더큰 주님의 사랑을 느낄수 있는 은총의 시간임을...)
- 신안토니오(불경기로 불안한 직장생활 가운데 힘이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

예언 모음;

-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늘나라의 것을 찾고 얻으면, 이세상의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 더욱 더 나에게 매달려라. 너의 모든것을 다해 나에게 매달리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 지리라.
-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음의 눈을 떠라. 내가 있는 곳을 향해 눈을 떠라.
- 자선은 많은 죄를 없애준다. 자선을 베풀때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 손이 모르도록 하여라. 기도할때도 항상 겸손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사랑으로 기도하여라.

%%%%%%%%

%%%%%%%%

6. 오늘 기도회에서도 새로운 찬미곡을 오그라또 형제님이 준비하여 모든 가족이 새로운 느낌으로 성가로서 주님께 찬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 기도회는 현재 불황으로 당면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 더욱이 육신의 병고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하여 한마음이 되어 그 아픔을 느끼며 기도회를 마쳤다.
8.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부부가 각각 간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령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묵주 기도 5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기도중에 주님의 자비를 빌어주세요.
4. 조아가다 자매님: 난소암과 위암 수술후 집으로 돌아와 가료중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본인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5. 김까리타스자매님 Oregon의 한 수녀원에서 요양을 잘 마치고 싸크라멘토로 돌아 오셨습니다.

@@@@@ 기도 요청 @@@@@

- + Lupus 병을 연구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가 단 시일내로 나오도록 절실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 + 조영희 (수산나) 자매님 취장 수술후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빠른 시일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 김대중 토마스형제님은 수술후 호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형제님의 부인이신 에밀리아 자매님이 중병으로 수술차 뉴욕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가정을 위하여 절실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본당에서 매주 봉사하시던 James Walker형제님이 목의 종양으로 투병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 생후 3개월된 어거스틴양이 머리의 종양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린 생명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도의 힘을 모아 주세요.

5분 묵상

(시련/고통) 두 개의 꽃병

영국의 조지 왕은 형인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급히 왕위를 이어받은 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과 살얼음을 밟는 것 같은 긴장된 생활에서 오는 불안으로 몹시 힘들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작은 소도시의 한 도자기 공장에 들르게 되었다. 평소 도자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는 모든 일정을 마친 뒤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공장을 둘러보았다.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된 그는 잘 만들어진 도자기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두 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유심히 살펴보니 두 개의 꽃병은 같은 원료와 같은 타일을 사용하여 무늬까지 똑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예술품 모양을 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불품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이 공장장에게 물었다.

"두 개의 꽃병이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지만 그 느낌이나 작품의 완성도가 너무 다르오. 하나는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졌으니 이곳에 전시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하나는 이곳에 두기엔 형편없는 것 같소.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두는 것이오?"
왕의 물음에 공장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시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합니다.
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것은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도, 지나고난 다음,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선물을 받을때에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크게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축복이라는것을 믿는다면, 담담하게 견내거나 피하지 말고, 오늘을 지내야 할것입니다. 모든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10 30

주제: "실천하는 삶."

진행: 김프란치스코. 음악봉사자; 오 그라또, 최 유스티노, 이세실리아

공동 복음 묵상: 마태 23, 1-12(그들은 말만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참석가족: 23명

나눔;

김 토마스: 겸손으로 무장되는 신앙생활이 주님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필로메나:술선수범으로 봉사를 하니 자신 뿐아니라 다른이의 표정부터가 달라져..)

김프란치스코:사도 바오로는 데살로니카인들이 하느님을 찾았다는것을 더 기뻐하여...)

이니콜라스:자신도 모르게 선생이되고픈 마음이 생겨.. 더 낮아져야 하는데..)

이 요셉:봉사 시작할때 마음이 직책이 주어지면 마음이 변하기 쉬워져...)

이 다니엘; "마음 깊은곳에 그물을 쳐서 하느님의 말씀을 건지십시오"의 말씀을 ...

박스테파노:좋은 말은 많이듣고 보지만, 실천하는것은 적으나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이수산나: 콩나물을 키우는데 물은 다 빠지고 말지만 콩나물이 자라듯 꾸준하면...

예언 모음:

- 내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절대로 너희를 고아로 버려 두지않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 내가 너희와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모든것을 나에게 의탁하고 믿고 마껴라.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리라.
- 남을 판단하지 말어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주어라.
- 네가 방황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더라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 너희들은 이미 나의 말을 다 들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해도 벌하지는 않는다. 다만 너희가 실천하기를 기다린다.
- 너희가 잘못을 했을때 , 나는 너희와 더욱 가까워진다.
- 너희는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내세워라.

%%%%%%%%

%%%%%%%%

9. 강루시아 자매님의 영애의 결혼 피로연이 11/3(일) 미사후 1시에 산타클라라에 있는 한성갈비에서있습니다. 기도회 가족을 모두 초청하였아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이 수산나자매님의 손자 토마스의 세례기념으로 맛있는 호박죽과 떡을 준비하시어 훈훈한 파티가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영육간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 11.김필립보네리 형제님의 모친이 위급하여 입원하는 소식에 온가족이 급히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청해 주십시오.
- 12.성령가족의 육신의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픈 가족, 허리가 아픈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 13.지난주 간암 진단을 받았던.
- 14.기도회 가족중에 직장일이 없어 힘들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청해주세요.
- 15.조아가다 자매님: 난소암과 위암 수술후 집으로 돌아와 가료중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알림** %%%%%%%%%

금요 기도회에서 주관하는 철야기도회(11/1)(10시에서 2~3시까지)중에 치유 예절이 있습니다. 교구내에 치유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Bob 형제님도 11시경에 치유예절에 합류하실 예정입니다. 치유가 필요하신분들은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도 요청 @@@@@@@@

- + Lupus 병을 연구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가 단 시일내로 나오도록 절실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 + 조영희 (수산나) 자매님 취장 수술후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빠른 시일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 김대중 토마스형제님은 수술후 호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형제님의 부인이신 에밀리아 자매님이 지난 화요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과가 좋아 회복중에 있습니다. 목주기도하여 주신 모든 성령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 + 본당에서 매주 봉사하시던 James Walker형제님이 목의 종양으로 투병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 생후 3개월된 어거스틴양이 머리의 종양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린 생명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도의 힘을 모아 주세요.

5분 묵상

기도

기도는 신앙을, 신앙은 사랑을,
그리고 사랑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봉사를 낳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마더테레사의 '말씀'중에서 -

로마를 터키 수도로 만들어 주세요

어느날 밤 엄마는 그의 아들 토마스의 취침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다.

"사랑의 하나님, 로마를 터키의 수도로 만들어 주세요!"

너무 놀란 엄마는 토마스에게 물었다.

"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니?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인데, 로마를 터키의 수도로 만들어 달라니?"

아들은 애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엄마, 제가 오늘 학교에서 지리 시험을 봤거든요." ^^;;

마치 내가 하는 기도가 매번 이런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